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 Trade Focus

Vol. No.41

## 한일 무역의 특징과 한일 FTA에 대한 시사점

— 한일 FTA에 대한 무역업계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2015년 10월

제현정 연구위원

박지은 수석연구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목차

|                                  |    |
|----------------------------------|----|
| I. 연구 배경 및 목적 .....              | 1  |
| II. 최근 한·일 무역구조 분석과 관세율 비교 ..... | 2  |
| 1. 최근 한·일 무역동향 및 특징 .....        | 2  |
| 2. 한·일 양국간 분업 및 경쟁구조 .....       | 6  |
| 3. 시사점 .....                     | 14 |
| III. 한·일 FTA에 대한 무역업계 설문조사 ..... | 18 |
| 1. 설문조사 개요 .....                 | 18 |
| 2. 설문조사 내용 .....                 | 20 |
| 3. 시사점 .....                     | 31 |
| IV. 결론 및 시사점 .....               | 33 |

☐ 보고서 내용 문의처

제현정 연구위원(☎ 02-6000-5175, hjje76@kita.net)

박지은 수석연구원(☎ 02-6000-5342, jieunpark@kita.net)

## I. 연구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미국, EU, 아세안, 중국 등 일본을 제외한 세계 거대 경제권과 FTA를 발효·타결한 상황에서 주요 무역상대국인 일본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 틀에서의 FTA 체결에 대한 대비 필요
  - 한·일 양자간 FTA 협상은 2004년 말 6차 협상 이후 결렬된 상태이며, 현재 일본과의 시장자유화 논의는 한·중·일 3국간 FTA와 RCEP<sup>1)</sup> 다국간 협상에서 진행되고 있음
    - 한중일 FTA 협상은 2013년 3월에 개시된 이래 최근 8차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RCEP 협상은 2013년 5월에 개시되어 금년 10월 10차 협상 개최 예정
  - 한편, 향후 우리나라가 TPP<sup>2)</sup>에 참여하게 될 경우 아직까지 우리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멕시코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은 우리나라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아 만성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무역상대국으로 FTA를 통한 시장개방시 신중한 접근과 치밀한 협상 전략이 요구됨
  - 시장개방 협상 이전에 對일본 수출 확대 가능 품목, 생산비 절감을 위한 수입 개방 필요 품목, 우리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감 품목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필요
- 이에 동 보고서는 최근 한·일 무역구조와 양국의 관세율을 분석하고 한·일 FTA에 대한 우리 무역업계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현재 진행 중 또는 미래의 한·일 FTA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임

2) TPP(Trans-pacific Partnership)는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 환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무역자유화 협정이며, 지난 10월 6일에 협상이 타결됨

## II. 최근 한·일 무역구조 분석과 관세율 비교

### 1. 최근 한·일 무역동향 및 특징

#### (1) 한·일 간 무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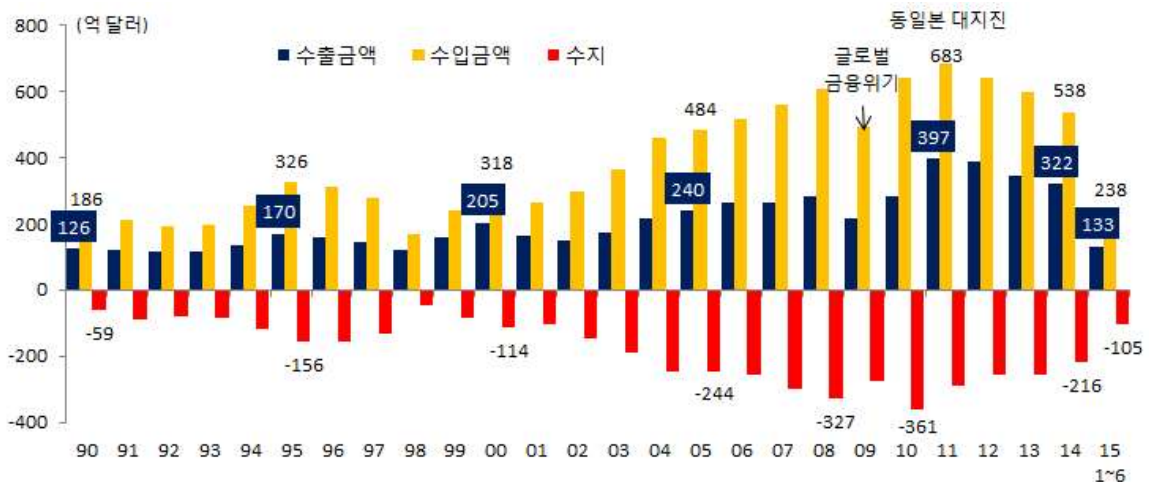
□ 한국과 일본 간 무역은 동일본 대지진(2011)을 기점으로 수출입 모두 감소세를 기록

○ 일본에 대한 수출은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수입수요 급증으로 2011년 397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

○ 일본으로부터 수입도 2011년 683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금년까지 감소세 지속

○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는 2010년 361억 달러로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이후 적자폭은 감소하였으나 200억 달러 이상의 적자 지속

〈한국의 對일본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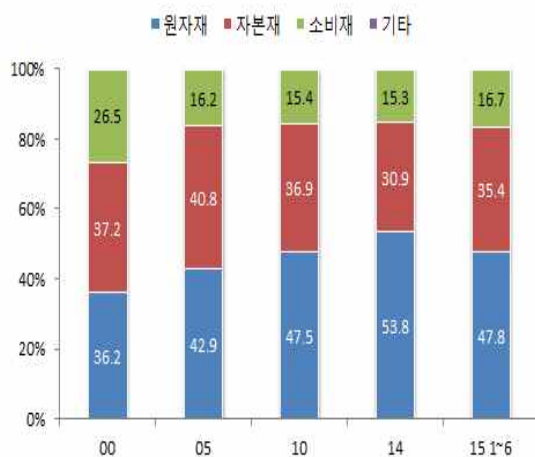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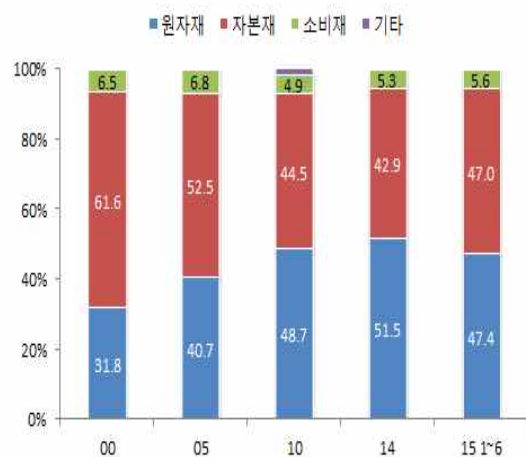
□ 일본과의 수출입 모두 원자재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수출은 소비재 비중이, 수입은 자본재 비중이 감소

- 일본에 대한 수출은 석유제품, 철강제품 등을 포함한 원자재 수출 비중이 4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재 35.4%, 소비재는 16.7% 차지
- 수입의 경우 원자재 수입 비중이 2000년 초 30% 초반에서 47.4%로 확대되었으며, 자본재 수입 비중은 동 기간 60%대에서 47%로 축소
- 양국간 가격 변동에 민감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원료, 철강제품 수출입이 증가함에 따라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한 수출입 구조로 변화

〈對일본 성질별 수출〉



〈對일본 성질별 수입〉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 (2) 한·일 간 수출입 품목 변화

- 일본에 대한 주요 수출 품목은 석유제품, 철강판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반도체 및 철강판 등임
- 주요 수출품목 중 석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기준 20%를 차지
- 일본에 대한 수출의 10% 이상을 차지했던 반도체 비중이 2014년에는 5.9%로 감소
- 이 외에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등의 비중이 각각 6%대이며, 최근 수출 증가세가 지속된 자동차 부품이 2.7%를 차지

### 〈對일본 주요 수출품목 추이〉

(단위: %)

| 2000년     |             | 2005년     |             | 2010년     |             | 2014년     |             |
|-----------|-------------|-----------|-------------|-----------|-------------|-----------|-------------|
| 품목        | 비중          | 품목        | 비중          | 품목        | 비중          | 품목        | 비중          |
| 석유제품      | 17.8        | 석유제품      | 15.4        | 석유제품      | 12.8        | 석유제품      | 20.1        |
| 반도체       | 15.5        | 반도체       | 12.2        | 반도체       | 11.8        | 철강판       | 6.6         |
| 컴퓨터       | 11.5        | 철강판       | 6.9         | 철강판       | 7.1         | 무선통신기기    | 6.2         |
| 의류        | 5.0         | 평판디스플레이   | 6.0         | 무선통신기기    | 5.0         | 반도체       | 5.9         |
| 철강판       | 4.8         | 컴퓨터       | 4.0         | 플라스틱제품    | 3.2         | 금은 및 백금   | 3.0         |
| 음향기기      | 2.4         | 전자응용기기    | 3.1         | 평판디스플레이   | 3.2         | 자동차부품     | 2.7         |
| 영상기기      | 2.1         | 플라스틱제품    | 2.6         | 금은 및 백금   | 2.7         | 플라스틱제품    | 2.5         |
| 어류        | 2.1         | 기초유분      | 1.9         | 합성수지      | 2.2         | 합성수지      | 2.5         |
| 플라스틱제품    | 2.0         | 금형        | 1.8         | 정밀화학원료    | 2.1         | 정밀화학원료    | 2.4         |
| 합성수지      | 1.2         | 의류        | 1.7         | 컴퓨터       | 2.1         | 주단조품      | 1.7         |
| <b>합계</b> | <b>64.3</b> | <b>합계</b> | <b>55.6</b> | <b>합계</b> | <b>52.2</b> | <b>합계</b> | <b>53.6</b> |

주 : 품목은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 o 1위 수입 품목인 반도체 수입 비중이 10% 이하로 하락한 반면, 최근 플라스틱 제품 및 기초유분 수입 비중이 확대

### 〈對일본 주요 수입품목 추이〉

(단위: %)

| 2000년     |             | 2005년      |             | 2010년          |             | 2014년       |             |
|-----------|-------------|------------|-------------|----------------|-------------|-------------|-------------|
| 품목        | 비중          | 품목         | 비중          | 품목             | 비중          | 품목          | 비중          |
| 반도체       | 13.5        | 반도체        | 11.0        | 철강판            | 8.7         | 반도체         | 8.0         |
| 철강판       | 5.8         | 철강판        | 7.7         | 반도체            | 6.9         | 철강판         | 6.2         |
| 반도체제조용 장비 | 4.9         | 반도체제조용 장비  | 4.7         | 플라스틱제품         | 6.6         | 플라스틱제품      | 5.3         |
| 기타기계류     | 4.3         | 플라스틱제품     | 3.7         | 반도체제조용 장비      | 4.8         | 기초유분        | 4.9         |
| 컴퓨터       | 3.1         | 기타잡제품      | 2.6         | 기타화학공업 제품      | 3.1         | 반도체제조용 장비   | 3.9         |
| 무선통신기기    | 2.6         | 전자응용기기     | 2.5         | 유리제품           | 3.0         | 광학기기        | 3.4         |
| 광학기기      | 2.3         | 합금철선철 및 고철 | 2.2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 3.0         | 합금철 선철 및 고철 | 3.1         |
| 기구부품      | 2.2         | 계측제어분석기    | 2.1         | 합금철선철 및 고철     | 2.8         | 기타화학공업 제품   | 2.7         |
| 자동차부품     | 2.2         | 자동차부품      | 2.1         | 광학기기           | 2.7         | 정밀화학원료      | 2.5         |
| 합성수지      | 2.1         | 기구부품       | 2.1         | 원동기및펌프         | 2.6         | 석유제품        | 2.4         |
| <b>합계</b> | <b>43.0</b> | <b>합계</b>  | <b>40.8</b> | <b>합계</b>      | <b>44.3</b> | <b>합계</b>   | <b>42.4</b> |

주 : 품목은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o 2000년대 중반까지 무역수지 적자폭이 가장 큰 품목은 반도체제조용 장비였으나 최근에는 기초유분 및 기타 플라스틱제품의 적자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대부분 소재·부품 및 장비에서 비롯되며, 최근에는 승용차 부분도 적자폭이 커짐

### 〈對일본 주요 무역수지 적자품목 추이〉

(단위: 억 달러)

| 2000년     |       | 2005년     |       | 2010년         |       | 2014년     |       |
|-----------|-------|-----------|-------|---------------|-------|-----------|-------|
| 품목        | 금액    | 품목        | 금액    | 품목            | 금액    | 품목        | 금액    |
| 반도체 제조용장비 | -14.4 | 반도체 제조용장비 | -20.4 | 기타 플라스틱제품     | -30.7 | 기초유분      | -23.8 |
| 기타기계류     | -11.2 | 중후판       | -12.6 | 반도체 제조용장비     | -26.0 | 기타 플라스틱제품 | -18.0 |
| 열연강판      | -8.2  | 기타잡제품     | -12.0 | 열연강판          | -25.8 | 광학기기부품    | -16.3 |
| 개별소자반도체   | -7.7  | 기타 플라스틱제품 | -11.3 | 기타 화학공업제품     | -17.0 | 집적회로반도체   | -16.1 |
| 광학기기부품    | -6.1  | 열연강판      | -10.3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장비 | -16.6 | 반도체 제조용장비 | -15.8 |
| 무선통신기기 부품 | -5.5  | 고철        | -8.3  | 판유리           | -15.2 | 고철        | -13.9 |
| 자동차부품     | -5.5  | 석유화학 중간원료 | -8.2  | 강반제품          | -14.3 | 기타 화학공업제품 | -12.4 |
| 기타 정밀화학원료 | -4.6  | 실리콘웨이퍼    | -7.9  | 광학기기부품        | -13.6 | 석유화학 중간원료 | -11.3 |
| 기타 화학공업제품 | -4.4  | 광학기기부품    | -7.9  | 고철            | -13.1 | 열연강판      | -10.4 |
| 축전지       | -4.0  | 기타 화학공업제품 | -7.5  | 중후판           | -12.5 | 승용차       | -9.5  |

주 : 품목은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 2. 한·일 양국간 분업 및 경쟁구조

### (1) 한·일 간 분업구조 분석

□ 한·일 간 분업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내무역지수<sup>3)</sup>를 산출한 결과, 2007년 이후 양국간 산업내무역이 더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중 직물(0.966), 가죽 및 신발류(0.989), 전기전자(0.809) 등의 산업내무역지수가 높고, 석유제품(0.243), 의류(0.242), 화학제품(0.480)은 낮게 나타남
  - 제조업 중 산업내무역지수가 가장 높은 직물은 2007년 0.821에서 금년 상반기에 0.966으로 상승하였으며, 전기전자는 동 기간 0.773에서 0.809로 상승
- 2007년 이후 산업내무역이 가장 활발해진 품목은 수송기계로 산업내무역지수가 2007년 0.306에서 금년 상반기 0.653까지 상승
  - 이는 완성 자동차의 경우 일본의 對한국 수출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우리의 對일본 자동차 부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임
- 기계는 산업내무역지수가 2010년에 0.366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 다시 상승하여 2014년부터 0.5를 초과
- 석유제품, 의류, 화학제품은 산업내무역지수가 낮은 산업으로 의류의 경우 최근 산업내무역지수가 2007년에 비해 더 하락하였으며, 화학제품은 2007년 0.358에서 0.480으로 상승

3) 산업내무역지수는 Grubel-Lloyd지수(GL지수)를 사용함. Grubel-Lloyd의 산업내 무역은 “개별산업의 수입액과 정확하게 중복되는 동일 산업의 수출액”으로 정의하고 특정 i산업의 산업내 무역지수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도출함. GL 지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지수값이 0인 경우는 수출 또는 수입 중 하나에 특화된 무역을 나타내며,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전체 무역금액 중 산업내 무역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다만 산업내무역지수는 산업의 포괄범위에 따라 변화가 심한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절대적인 수준보다는 동태적 변화, 타산업과의 비교 등을 통해 결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GL_i = \left( \frac{(X_i + M_i) - |X_i - M_i|}{(X_i + M_i)} \right) = 1 - \frac{|X_i - M_i|}{(X_i + M_i)}$$

〈對일본 산업내무역지수 변화 추이〉

|          | 對일본 산업내무역지수 |       |       |         |
|----------|-------------|-------|-------|---------|
|          | 2007        | 2010  | 2014  | '15 1~6 |
| 전 품목     | 0.639       | 0.610 | 0.749 | 0.717   |
| 동물       | 0.910       | 0.766 | 0.986 | 0.856   |
| 유제품      | 0.180       | 0.115 | 0.027 | 0.025   |
| 과일, 채소   | 0.119       | 0.101 | 0.076 | 0.089   |
| 커피, 차    | 0.913       | 0.590 | 0.401 | 0.501   |
| 씨리얼      | 0.917       | 0.744 | 0.461 | 0.514   |
| 유박 및 유지류 | 0.171       | 0.699 | 0.601 | 0.653   |
| 당 및 당제품  | 0.295       | 0.215 | 0.115 | 0.210   |
| 음료수 및 담배 | 0.297       | 0.376 | 0.230 | 0.226   |
| 면화       | 0.133       | 0.085 | 0.092 | 0.175   |
| 기타 농산물   | 0.835       | 0.742 | 0.641 | 0.714   |
| 수산물      | 0.699       | 0.454 | 0.269 | 0.321   |
| 금속 및 광물  | 0.533       | 0.539 | 0.698 | 0.691   |
| 석유제품     | 0.163       | 0.257 | 0.315 | 0.243   |
| 화학제품     | 0.358       | 0.385 | 0.469 | 0.480   |
| 목재 및 제지  | 0.808       | 0.705 | 0.786 | 0.698   |
| 직물       | 0.821       | 0.912 | 0.989 | 0.966   |
| 의류       | 0.323       | 0.291 | 0.228 | 0.242   |
| 가죽 및 신발류 | 0.837       | 0.993 | 0.943 | 0.989   |
| 기계       | 0.460       | 0.366 | 0.545 | 0.512   |
| 전기전자     | 0.773       | 0.789 | 0.787 | 0.809   |
| 수송기계     | 0.306       | 0.398 | 0.682 | 0.653   |
| 기타 제조품   | 0.737       | 0.587 | 0.406 | 0.395   |

주 : 산업은 WTO 분류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 (2) 한·일 간 경쟁구도 분석

□ 일본과의 무역은 수입에 특화되어 있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 최근 까지 수입특화의 정도가 낮아지고 있음

- 한·일 간 경쟁구도를 살펴보기 위해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sup>4)</sup>를 산출한 결과, 2007년 -0.361이었던 무역특화지수가 금년 상반기에 -0.283으로 상승

4)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fication Index)는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수입특화 정도가 높으며, 1에 가까울수록 수출특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TSI_{ij} = \frac{X_{ij} - M_{ij}}{X_{ij} + M_{ij}} \quad X_{ij} \text{는 } I\text{국} \text{가 } j\text{품목에 대한 수출금액, } M_{ij} \text{는 } I\text{국} \text{가 } j\text{품목에 대한 수입금액}$$

- 일본에 대해 수입특화 된 품목은 화학제품과 기타 제조품이며, 수출특화 된 품목은 석유제품, 의류 및 농수산물임

〈한국의 對일본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분포〉

| 수입특화<br>$-1 \leq TSI < -0.5$ | 산업내무역                                                 |                                 | 수출특화<br>$0.5 \leq TSI \leq 1$                                   |
|------------------------------|-------------------------------------------------------|---------------------------------|-----------------------------------------------------------------|
|                              | $-0.5 \leq TSI < 0$                                   | $0 \leq TSI < 0.5$              |                                                                 |
| 화학제품<br>기타 제조품               | 기계, 수송기계,<br>금속 및 광물,<br>목재 및 제지,<br>전기전자, 직물<br>육류제품 | 가죽 및 신발,<br>유박 및 유지류,<br>기타 농산물 | 석유제품, 의류,<br>씨리얼, 커피, 수산물<br>음료수 및 담배,<br>당제품, 면화,<br>과채소류, 유제품 |

- 무역특화지수가 0.5 이상으로 수출특화 된 품목은 주로 농수산물과 제조업 중 석유제품, 의류 등임
  - 이 중 면화와 석유제품을 제외한 품목들은 2007년 이후 수출특화 정도가 더 높아졌으며, 커피 및 차가 2007년 0.087에서 금년 상반기 0.499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
  - 유박 및 유지류<sup>5)</sup>는 2010년까지 수입특화 품목이었으나 최근에는 수출특화로 전환됨
- 무역특화지수가 0.5 이하로 수입특화된 품목은 화학제품과 기타 제조품이며, 화학제품은 2007년 이후 수입특화 정도가 -0.642에서 -0.520(+0.122)으로 개선된 반면 기타 제조품은 -0.263에서 -0.605(-0.343)로 수입특화 정도가 높아짐
  - 이 외에 수입특화 된 품목은 목재 및 제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입특화 정도는 개선되었으며, 특히 수송기계의 수입특화 지수가 2007년 -0.694에서 금년 -0.347(+0.347)로 가장 큰 폭으로 변화
  - 수입특화 정도가 개선된 품목 중 상승폭이 가장 작은 품목은 기계이며, 2007년 -0.540에서 금년 -0.488(+0.052)로 상승

5) 유박(oil cake)은 유지작물로 기름을 짜서 남은 찌꺼기이며, 사료 또는 비료 등으로 사용됨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추이〉

|          | 對일본 무역특화지수 |        |        |         | 對세계 무역특화지수 |        |        |         |
|----------|------------|--------|--------|---------|------------|--------|--------|---------|
|          | 2007       | 2010   | 2014   | '15 1~6 | 2007       | 2010   | 2014   | '15 1~6 |
| 전 품목     | -0.361     | -0.390 | -0.251 | -0.283  | 0.020      | 0.046  | 0.043  | 0.094   |
| 동물       | -0.090     | 0.234  | -0.014 | 0.144   | -0.967     | -0.962 | -0.961 | -0.955  |
| 유제품      | 0.820      | 0.885  | 0.973  | 0.975   | -0.939     | -0.901 | -0.882 | -0.893  |
| 과일, 채소   | 0.881      | 0.899  | 0.924  | 0.911   | -0.573     | -0.526 | -0.658 | -0.740  |
| 커피, 차    | 0.087      | 0.410  | 0.599  | 0.499   | -0.562     | -0.559 | -0.565 | -0.580  |
| 씨리얼      | 0.083      | 0.256  | 0.539  | 0.486   | -0.671     | -0.610 | -0.566 | -0.550  |
| 유박 및 유지류 | -0.829     | -0.301 | 0.399  | 0.347   | -0.970     | -0.944 | -0.909 | -0.907  |
| 당 및 당제품  | 0.705      | 0.785  | 0.885  | 0.790   | -0.474     | -0.501 | -0.480 | -0.526  |
| 음료수 및 담배 | 0.703      | 0.624  | 0.770  | 0.774   | -0.143     | -0.024 | 0.041  | 0.090   |
| 면화       | 0.867      | 0.915  | 0.908  | 0.825   | -0.927     | -0.932 | -0.924 | -0.933  |
| 기타 농산물   | 0.165      | 0.258  | 0.359  | 0.286   | -0.795     | -0.756 | -0.693 | -0.698  |
| 수산물      | 0.301      | 0.546  | 0.731  | 0.679   | -0.468     | -0.334 | -0.433 | -0.475  |
| 금속 및 광물  | -0.467     | -0.461 | -0.302 | -0.309  | -0.385     | -0.376 | -0.352 | -0.294  |
| 석유제품     | 0.837      | 0.743  | 0.685  | 0.757   | -0.510     | -0.481 | -0.437 | -0.390  |
| 화학제품     | -0.642     | -0.615 | -0.531 | -0.520  | 0.069      | 0.086  | 0.184  | 0.164   |
| 목재 및 제지  | -0.192     | -0.295 | -0.214 | -0.302  | -0.392     | -0.330 | -0.313 | -0.338  |
| 직물       | -0.179     | -0.088 | -0.011 | -0.034  | 0.374      | 0.334  | 0.328  | 0.291   |
| 의류       | 0.677      | 0.709  | 0.772  | 0.758   | -0.405     | -0.474 | -0.596 | -0.560  |
| 가죽 및 신발류 | -0.163     | -0.007 | 0.057  | -0.011  | 0.201      | 0.204  | 0.168  | 0.142   |
| 기계       | -0.540     | -0.634 | -0.455 | -0.488  | 0.108      | 0.052  | 0.126  | 0.144   |
| 전기전자     | -0.227     | -0.211 | -0.213 | -0.191  | 0.232      | 0.281  | 0.301  | 0.280   |
| 수송기계     | -0.694     | -0.602 | -0.318 | -0.347  | 0.748      | 0.758  | 0.725  | 0.708   |
| 기타 제조품   | -0.263     | -0.413 | -0.594 | -0.605  | 0.228      | 0.348  | 0.266  | 0.245   |

주: 품목분류는 WTO 기준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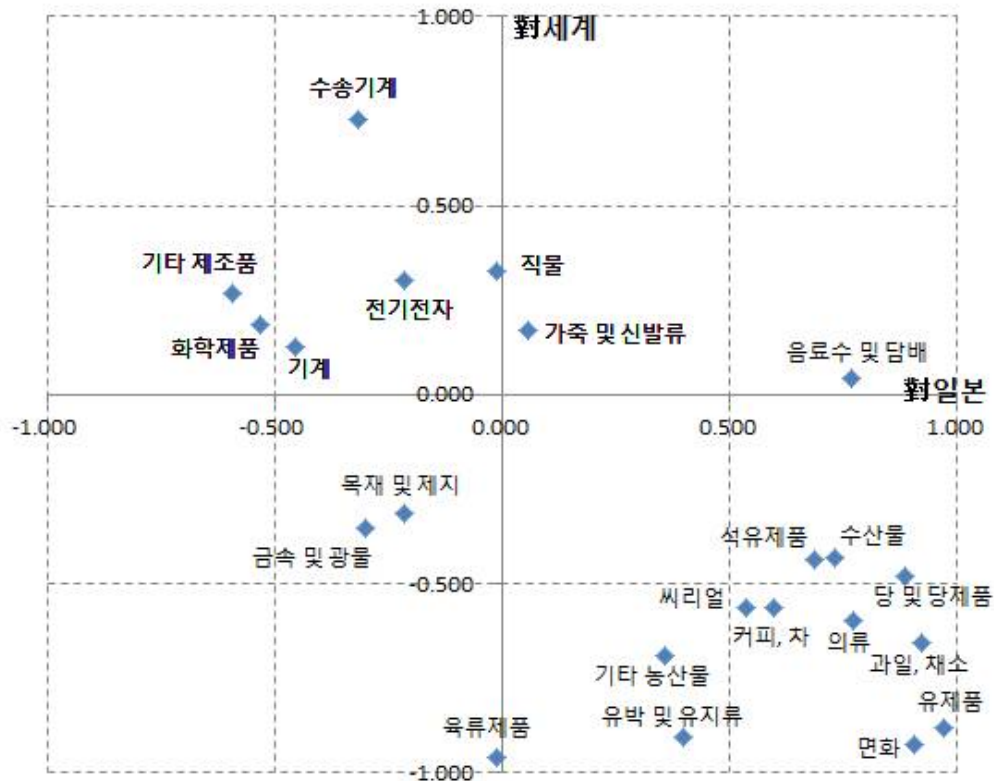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 품목별로 세계 및 일본에 대한 무역특화지수 분포를 살펴본 결과,

- 세계 및 일본에 대해 모두 수출특화 된 품목은 가죽 및 신발류와 음료수 및 담배로 나타남
- 對세계 수입특화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수출특화인 품목은 대부분 농수산물이며, 제조업 중에는 석유제품과 의류가 포함되어 있음

- 對세계 및 對일본 모두 수입특화 된 품목은 목재 및 제지와 금속 및 광물
- 對세계 수출특화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수입특화인 품목은 수송기계, 기타 제조품, 전기전자, 화학제품, 기계, 식물 등 제조업 주요 품목이 대부분 포함됨
- 對세계 수출특화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 수입특화인 품목들은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형 또는 우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품목별 對세계, 對일본 무역특화지수 분포〉



주: 품목분류는 WTO 기준, 수출입 통계는 2014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 (3) 한일 간 관세율 비교

□ 한국의 對일본 가중평균관세율은 4.26%인 반면, 일본의 對한국 가중평균 관세율은 1.20%에 불과

- 한국의 종가세 기준 단순평균관세율은 13.47%, 對세계 가중평균관세율은 7.29%이나, 일본에 대한 가중평균관세율은 4.26% 수준임
- 일본의 종가세 기준 단순평균관세율은 4.55%, 對세계 가중평균관세율은 1.39%, 한국에 대한 가중평균관세율은 1.20%로 매우 낮은 수준임

|        | HS 코드개수 | 단순평균  | 최대값   | 對세계<br>가중평균 | 상호 가중평균   |
|--------|---------|-------|-------|-------------|-----------|
| 한국 관세율 | 12,243  | 13.47 | 887.4 | 7.29        | 4.26 (對日) |
| 일본 관세율 | 8,700   | 4.55  | 50.0  | 1.39        | 1.20 (對韓) |

주: 종량세는 제외, 한국은 HS 10단위 기준, 일본은 9단위 기준, 가중치로 활용한 수입금액은 2014년 기준

자료: 트레이드내비

□ 한국의 일본에 대한 가중평균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유제품, 음료수 및 담배, 과일 및 채소 순이며, 가장 낮은 품목은 목재 및 제지, 금속 및 광물, 전기전자 순으로 나타남

- 농수산물 중 가중평균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유제품(36.11%), 음료수 및 담배(25.54%), 과일 및 채소(22.70%)이며, 낮은 품목은 면화(0%), 육류제품(7.06%), 당제품(8.27%), 유박 및 유지류(8.37%)로 나타남
- 제조업 중 가중평균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의류(12.81%), 식물(7.92%), 가죽 및 신발류(7.36%)이며, 낮은 품목은 목재 및 제지(0.34%), 금속 및 광물(2.44%), 전기전자(2.46%)순임
- 對세계 가중평균관세율보다 對일본 가중평균관세율이 더 높은 품목은 농수산물 중 당제품, 음료수 및 담배, 수산물, 커피 및 차와 제조업 중 금속 및 광물, 석유제품, 기계, 전기전자, 수송기계, 기타 제조품으로 나타남

### 〈한국 관세율 현황(2014)〉

|          | HS 코드<br>개수 | 단순평균   | 최소값  | 최대값    | 對세계<br>가중평균 | 對일본<br>가중평균  |
|----------|-------------|--------|------|--------|-------------|--------------|
| 육류제품     | 210         | 21.56  | 0.00 | 89.10  | 30.88       | 7.06         |
| 유제품      | 54          | 61.41  | 8.00 | 176.00 | 54.93       | 36.11        |
| 과일, 채소   | 490         | 78.67  | 0.00 | 887.40 | 64.67       | 22.70        |
| 커피, 차    | 53          | 32.28  | 2.00 | 513.60 | 6.60        | <b>14.51</b> |
| 씨리얼      | 215         | 119.79 | 0.00 | 800.30 | 156.36      | 21.19        |
| 유박 및 유지류 | 162         | 38.37  | 0.00 | 630.00 | 126.89      | 8.37         |
| 당 및 당제품  | 34          | 18.03  | 3.00 | 243.00 | 6.76        | <b>8.27</b>  |
| 음료수 및 담배 | 106         | 30.98  | 8.00 | 270.00 | 23.37       | <b>25.54</b> |
| 면화       | 10          | 0.00   | 0.00 | 0.00   | 0.00        | 0.00         |
| 기타 농산물   | 392         | 29.21  | 0.00 | 754.30 | 27.07       | 11.43        |
| 수산물      | 540         | 17.05  | 0.00 | 40.00  | 16.23       | <b>18.23</b> |
| 금속 및 광물  | 1793        | 4.76   | 0.00 | 8.00   | 2.21        | <b>2.44</b>  |
| 석유제품     | 124         | 5.50   | 0.00 | 8.00   | 2.51        | <b>4.59</b>  |
| 화학제품     | 2364        | 5.73   | 0.00 | 50.00  | 5.01        | 4.83         |
| 목재 및 제지  | 651         | 2.76   | 0.00 | 13.00  | 2.26        | 0.34         |
| 직물       | 1013        | 8.72   | 0.00 | 13.00  | 8.17        | 7.92         |
| 의류       | 321         | 12.52  | 8.00 | 13.00  | 12.84       | 12.81        |
| 가죽 및 신발류 | 367         | 8.72   | 0.00 | 16.00  | 8.10        | 7.36         |
| 기계       | 1286        | 5.87   | 0.00 | 13.00  | 4.72        | <b>5.46</b>  |
| 전기전자     | 697         | 5.50   | 0.00 | 13.00  | 2.25        | <b>2.46</b>  |
| 수송기계     | 304         | 6.01   | 0.00 | 10.00  | 5.88        | <b>6.43</b>  |
| 기타 제조품   | 1057        | 6.16   | 0.00 | 13.00  | 6.01        | <b>6.40</b>  |

주: 종량세는 제외, 한국은 HS 10단위 기준, 일본은 9단위 기준, 수입금액은 2014년 기준  
 자료: 트레이드내비

□ 일본의 한국에 대한 가중평균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씨리얼(곡물), 당제품, 커피 및 차 순이며, 낮은 품목은 기계, 수송기계, 전기전자 등임

- 농수산물 중 가중평균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씨리얼(24.12%), 당제품(21.47%), 커피 및 차(21.11%)이며, 낮은 품목은 유제품 및 면화(0%), 유박 및 유지류(0.17%)로 나타남
- 제조업 중 가중평균관세율이 높은 품목은 의류(9.02%), 직물(4.61%), 화학제품(2.63%)이며, 낮은 품목은 기계 및 수송기계(0%), 전기전자(0.04%) 순임
- 對세계 가중평균관세율보다 對한국 가중평균관세율이 더 높은 품목은 농수산물 중 커피, 차, 씨리얼, 당제품, 음료수 및 담배, 수산물

및 기타 농산물이며, 제조업은 금속 및 광물, 석유제품, 화학제품, 전기전자, 기타 제조품으로 나타남

<일본 관세율 현황(2015)>

|          | HS 코드<br>개수 | 단순평균  | 최소값   | 최대값   | 對세계<br>가중평균 | 對한국<br>가중평균  |
|----------|-------------|-------|-------|-------|-------------|--------------|
| 육류제품     | 162         | 7.93  | 0.00  | 50.00 | 9.75        | 7.49         |
| 유제품      | 19          | 26.08 | 21.30 | 40.00 | 30.02       | 0.00         |
| 과일, 채소   | 488         | 9.40  | 0.00  | 46.80 | 10.10       | 5.27         |
| 커피, 차    | 62          | 17.03 | 0.00  | 29.80 | 6.00        | <b>21.11</b> |
| 씨리얼      | 199         | 16.20 | 0.00  | 50.00 | 12.58       | <b>24.12</b> |
| 유박 및 유지류 | 95          | 2.29  | 0.00  | 29.80 | 0.69        | 0.17         |
| 당 및 당제품  | 37          | 25.17 | 0.00  | 50.00 | 5.55        | <b>21.47</b> |
| 음료수 및 담배 | 114         | 18.46 | 0.00  | 34.00 | 8.90        | <b>13.18</b> |
| 면화       | 5           | 0.00  | 0.00  | 0.00  | 0.00        | 0.00         |
| 기타 농산물   | 264         | 2.40  | 0.00  | 40.00 | 2.08        | <b>5.31</b>  |
| 수산물      | 488         | 6.15  | 0.00  | 15.00 | 4.56        | <b>5.53</b>  |
| 금속 및 광물  | 1228        | 0.91  | 0.00  | 11.70 | 0.26        | <b>0.42</b>  |
| 석유제품     | 42          | 2.48  | 0.00  | 7.90  | 0.02        | <b>0.47</b>  |
| 화학제품     | 1183        | 2.53  | 0.00  | 15.30 | 1.83        | <b>2.63</b>  |
| 목재 및 제지  | 455         | 1.84  | 0.00  | 15.60 | 1.50        | 0.35         |
| 직물       | 1478        | 5.53  | 0.00  | 25.00 | 5.55        | 4.61         |
| 의류       | 508         | 9.21  | 0.00  | 17.40 | 9.03        | 9.02         |
| 가죽 및 신발류 | 318         | 10.80 | 0.00  | 30.00 | 6.88        | 1.01         |
| 기계       | 602         | 0.00  | 0.00  | 0.00  | 0.00        | 0.00         |
| 전기전자     | 314         | 0.08  | 0.00  | 4.80  | 0.01        | <b>0.04</b>  |
| 수송기계     | 134         | 0.00  | 0.00  | 0.00  | 0.00        | 0.00         |
| 기타 제조품   | 505         | 1.28  | 0.00  | 8.40  | 0.42        | <b>0.50</b>  |

주: 종량세는 제외, 한국은 HS 10단위 기준, 일본은 9단위 기준, 수입금액은 2014년 기준  
자료: 트레이드내비

### 3. 시사점

□ 한일 양국간 무역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무역구조는 석유제품 및 소재 등 원자재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로 변화

○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되고 있으며, 대부분 소재·부품 및 장비에서 비롯되며 최근에는 승용차 부분도 적자폭이 커짐

□ 최근 한일 양국간 산업내무역지수는 상승하고 우리의 對일본 수입 특화 수준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중 직물(0.966), 가죽 및 신발류(0.989), 전기전자(0.809) 등의 산업내무역지수가 높고, 석유제품(0.243), 의류(0.242), 화학제품(0.480)은 낮게 나타남

○ 최근 수송기계의 산업내무역지수가 2007년 0.306에서 금년 상반기 0.653 까지 상승하였는데 이는 최근 일본에 대한 자동차 부품 수출이 확대된 데 기인

○ 일본에 대해 수입특화 상태인 품목은 화학제품과 기타 제조품이며, 수출특화인 품목은 석유제품, 의류 및 농수산물임

□ 한국의 단순평균관세율은 13.47%이나 對일본 가중평균관세율은 7.29%이며, 일본은 단순평균관세율 4.55%, 對한국 가중평균관세율 1.20%로 매우 낮은 수준

○ 양국 모두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제조업의 경우 일본은 의류 및 직물, 가죽신발류를 제외하고는 3% 이하의 낮은 관세율 적용

- 특히, 기계류 및 수송기계에 대한 관세율은 대부분 무세임

□ 한일 분업관계, 무역특화에 따른 경쟁구도, 對세계 무역특화,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향후 양국간 시장개방에 따른 수출입 확대 효과를 예상해 본 결과,

- 일본에 대해 일방적인 수출특화 품목으로 일본의 관세율이 높아 시장개방시 수출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은 음료수 및 담배, 씨리얼, 당제품, 커피 및 차 등임
  - 특히, 음료수 및 담배는 우리의 對세계 수출특화 품목이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가중평균관세율이 13.18%로 높기 때문에 관세철폐시 수출 확대가 클 것으로 예상
  - 이 외의 농수산물 및 의류에 대한 관세는 우리나라도 높기 때문에 시장개방시 일본산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수입 보다는 수출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 한일 양국간 산업내무역이 이루어지고 對일본 수출특화 된 품목(가죽 및 신발류, 기타 농산물, 유박 및 유지류) 중 일본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타 농산물이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일본에 대해 일방적인 수입특화 상태인 화학제품과 기타 제조업은 우리의 관세 인하철폐시 일본산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화학제품의 경우 우리의 對일본 가중평균관세율이 6.40%로 상대적으로 높아 수입 확대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일본의 對한국 가중평균관세율은 0.50%에 불과하여 수출 확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산업내 무역이 이루어지고 일본에 대해 수입특화이지만 對세계 수출특화인 품목들 중 직물을 제외하고 수송기계, 기계, 전기전자는 수출 확대 효과는 거의 없고 수입만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수송기계, 기계, 전기전자는 일본의 관세율이 대부분 무세이기 때문에 시장개방 시 일본산 수입 확대 효과만 있으나, 산업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므로 산업내에서 수입 의존형 품목과 경쟁형 품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o 산업내 무역이 이루어지고 對일본 및 對세계 모두 수입특화인 육류제품, 금속 및 광물, 목재 및 제지는 육류제품만 수출입 모두 확대 예상

〈시장개방시 對일본 무역확대 효과 예상〉

| 한일<br>분업<br>관계    | 기준              |                 | 對한국<br>가중평균<br>관세율 | 對일본<br>가중평균<br>관세율 | 업종       | 개방시<br>對日<br>수출<br>확대<br>효과 | 개방시<br>對日<br>수입<br>확대<br>효과 |
|-------------------|-----------------|-----------------|--------------------|--------------------|----------|-----------------------------|-----------------------------|
|                   | 對일본<br>무역<br>특화 | 對세계<br>무역<br>특화 |                    |                    |          |                             |                             |
| <u>산업간<br/>무역</u> | 수출<br>특화        | 수출특화            | 13.18              | 25.54              | 음료수 및 담배 | ◎                           | ○                           |
|                   |                 | 수입<br>특화        | 24.12              | 21.19              | 씨리얼      | ◎                           | ○                           |
|                   |                 |                 | 21.47              | 8.27               | 당 및 당제품  | ◎                           | △                           |
|                   |                 |                 | 21.11              | 14.51              | 커피, 차    | ◎                           | △                           |
|                   |                 |                 | 9.02               | 12.81              | 의류       | ○                           | △                           |
|                   |                 |                 | 5.53               | 18.23              | 수산물      | ○                           | △                           |
|                   |                 |                 | 5.27               | 22.70              | 과일, 채소   | ○                           | ○                           |
|                   |                 |                 | 0.47               | 4.59               | 석유제품     | -                           | △                           |
|                   |                 |                 | 0.00               | 0.00               | 면화       | -                           | -                           |
|                   |                 |                 | 0.00               | 36.11              | 유제품      | -                           | △                           |
|                   | 수입<br>특화        | 수출<br>특화        | 0.50               | 6.40               | 화학제품     | -                           | ○                           |
|                   |                 |                 | 2.63               | 4.83               | 기타 제조품   | △                           | ○                           |
| <u>산업내<br/>무역</u> | 수출<br>특화        | 수출특화            | 1.01               | 7.36               | 가죽 및 신발류 | -                           | △                           |
|                   |                 | 수입<br>특화        | 5.31               | 11.43              | 기타 농산물   | △                           | △                           |
|                   |                 |                 | 0.17               | 8.37               | 유박 및 유지류 | -                           | △                           |
|                   | 수입<br>특화        | 수출<br>특화        | 4.61               | 7.92               | 직물       | △                           | ○                           |
|                   |                 |                 | 0.00               | 6.43               | 수송기계     | -                           | ○                           |
|                   |                 |                 | 0.00               | 5.46               | 기계       | -                           | ○                           |
|                   |                 |                 | 0.04               | 2.46               | 전기전자     | -                           | △                           |
|                   |                 | 수입<br>특화        | 7.49               | 7.06               | 육류제품     | △                           | △                           |
|                   |                 |                 | 0.42               | 2.44               | 금속 및 광물  | -                           | △                           |
|                   |                 |                 | 0.35               | 0.34               | 목재 및 제지  | -                           | -                           |

주: ◎ 효과가 큼, ○ 효과가 상당히 있음, △ 효과가 있음, - 효과 거의 없음

자료: 수출입 확대 효과에 대한 평가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자 작성

□ 한일 양국간 FTA를 통해 시장개방을 할 경우 농수산물 수출 확대, 화학제품 수입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일본의 관세구조만 보더라도 제조업에 대한 관세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철폐가 對일본 수출 확대에 가장 중요
- 화학제품은 對세계 수출특화로 경쟁력이 있으나 일본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입특화이므로 對일본 시장개방시 민감성을 반영할 필요
- 직물, 수송기계, 기계 및 전기전자도 관세 인하·철폐시 일본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내무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개방 협상을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품목별 분석이 필요함

### Ⅲ. 한·일 FTA에 대한 무역업계 설문조사

#### 1. 설문조사 개요

□ 우리나라의 한·일 FTA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무역업계의 입장 및 의견을 포괄적으로 조사

○ 한·일 FTA는 한·중·일 FTA, RCEP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의 TPP 가입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의 대한 한·일 FTA 협상이 선행적으로 필요

□ 이에 대일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1,000개 업체가 설문에 응답

○ 응답업체 1,000개사는 수출위주(54.8%), 수입위주(31.7%), 수출입 모두 활발(13.5%) 등 다양한 사업형태로 구성

- 취급품목 특성별로는 47.8%가 다른 기업의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중간재 위주, 42.7%가 최종소비재 위주, 양쪽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가 9.5%로 나타남

#### 〈조사대상의 특성〉

(단위: 개사, %)

| 사업형태  |       | 취급품목 특성 |       | 종업원 수(정규직 기준) |       |
|-------|-------|---------|-------|---------------|-------|
| 수출 위주 | 548   | 중간재     | 478   | 50명 미만        | 644   |
| 수입 위주 | 317   | 최종소비재   | 427   | 50~299명       | 284   |
| 모두 활발 | 135   | 양쪽혼재    | 95    | 300명 이상       | 65    |
| 무응답   | -     | 무응답     | -     | 무응답           | 7     |
| 합계    | 1,000 | 합계      | 1,000 | 합계            | 1,000 |

### 【설문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대일 무역업체 대상으로 랜덤(random) 표본 추출
- 유효표본 : 1000개 업체
- 조사기간 : 2015년 8월 19일~9월 4일
- 조사방법 : 구조화 된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Web Survey)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3.1\%$
- 수행기관 : (주)한국CNR

o 주요 설문내용은 대일 수출입 및 국내시장 내수 판매 유무 등 조사 대상군 특성에 맞게 구성하여 한·일 FTA 영향, 대응 방안, 경쟁 구도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

□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일부 업종의 경우 유효표본 숫자가 충분하지 않고, 업종별 무역금액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상의 한계가 있음

### 〈업종별 비중〉

(단위: %)

| 업종 | 농수산물 | 광산물 | 석유제품 | 석화제품 | 정밀화학 | 기타<br>화공제품  | 플라, 고무<br>가죽제품 | 섬유류  |
|----|------|-----|------|------|------|-------------|----------------|------|
| 비중 | 7.5  | 1.4 | 0.1  | 2.1  | 4.5  | 5.0         | 6.4            | 4.6  |
| 업종 | 생활용품 | 철강  | 비철금속 | 기계   | 정밀기계 | 자동차<br>및 부품 | 전자전기           | 기타   |
| 비중 | 5.5  | 3.8 | 2.6  | 13.9 | 10.2 | 7.3         | 14.6           | 1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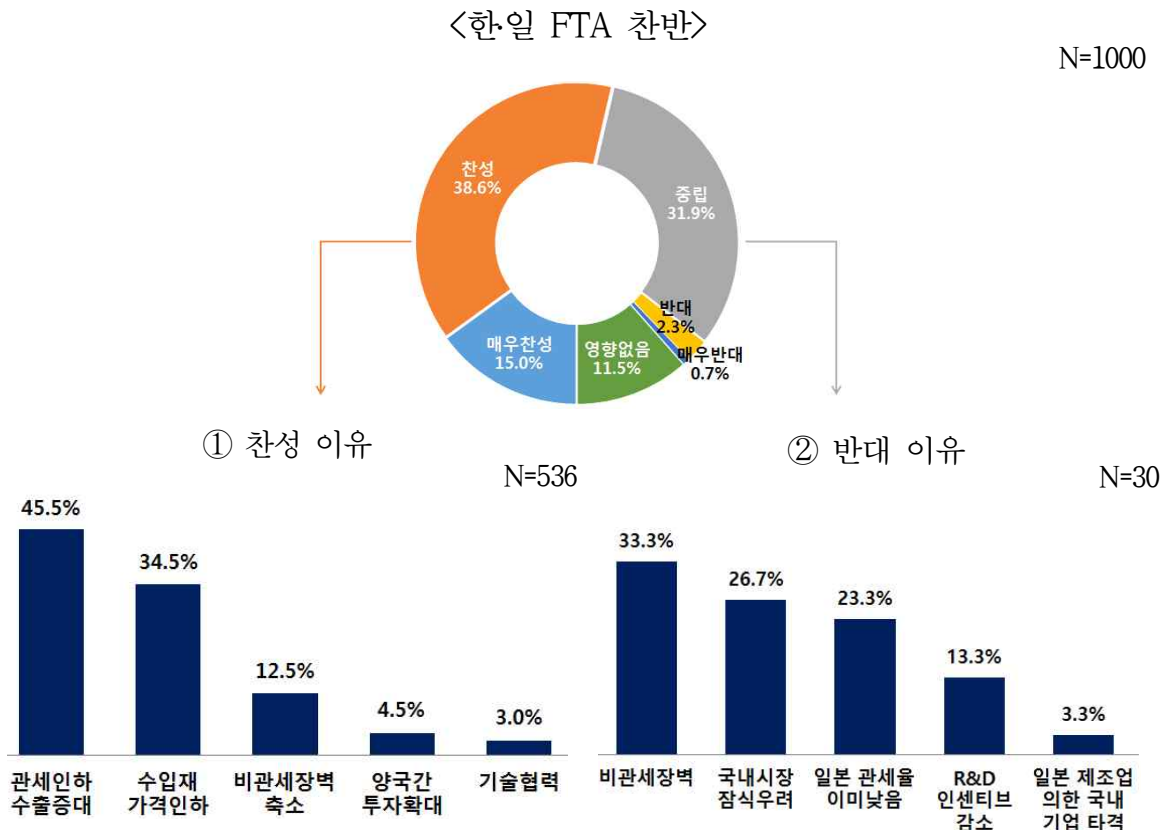
## 2. 설문조사 내용

### (1) 한·일 FTA 체결에 대한 찬반 의견

□ 무역업계의 53.6%가 한·일 FTA 체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하는 기업은 3.0%에 불과

○ (찬성이유) 한·일 FTA 찬성 이유로는 관세 인하로 수출이 증대될 것 (45.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수입재 가격인하(34.5%), 비관세장벽 축소(12.5%) 등의 순으로 조사됨

- 수입재 가격인하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업체(N=185) 가운데 소재부품 조달비용 절감(45.9%) 및 자본재 수입비용 절감(17.8%) 비율이 높게 나타나 한·일 FTA에 따른 수입 관세 철폐는 우리 업계의 제조원가 절감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



- (반대이유) 한·일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일본의 유통관행, 상거래 관습 등의 비관세장벽(33.3%)으로 FTA를 통한 수출 확대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이어서 국내시장 잠식 우려(26.7%), 일본 관세율이 이미 낮아 관세 인하 효과 없음(2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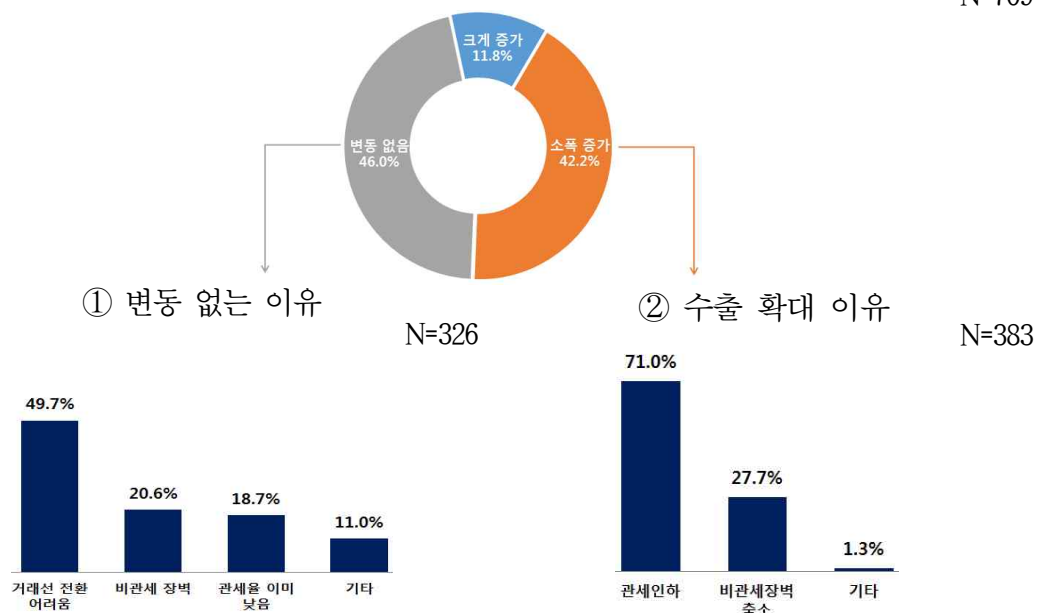
## (2) 한·일 FTA에 따른 수출 영향 (한국→일본)

□ 한·일 FTA 체결에 따른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수출에 변동이 거의 없음(46.0%), 소폭 증가(42.2%), 크게 증가(11.8%) 순으로 응답

- (수출 변동 없음) 수출에 변동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의 49.7%가 고정 거래로 현재의 거래선 전환이 어렵다고 밝힘
- 이어서 일본의 유통관행, 상거래 관습, 시험·인증 등의 비관세장벽 (27.7%)과 이미 낮은 관세율(18.7%)로 FTA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FTA 체결에 의한 대일 수출 전망〉

N=709



○ (수출 확대) 한·일 FTA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한 업체는 주된 이유를 일본측의 수입관세 인하(71.0%)로 꼽았고, 그 외에도 일본의 비관세장벽 축소(27.7%)가 기대된다고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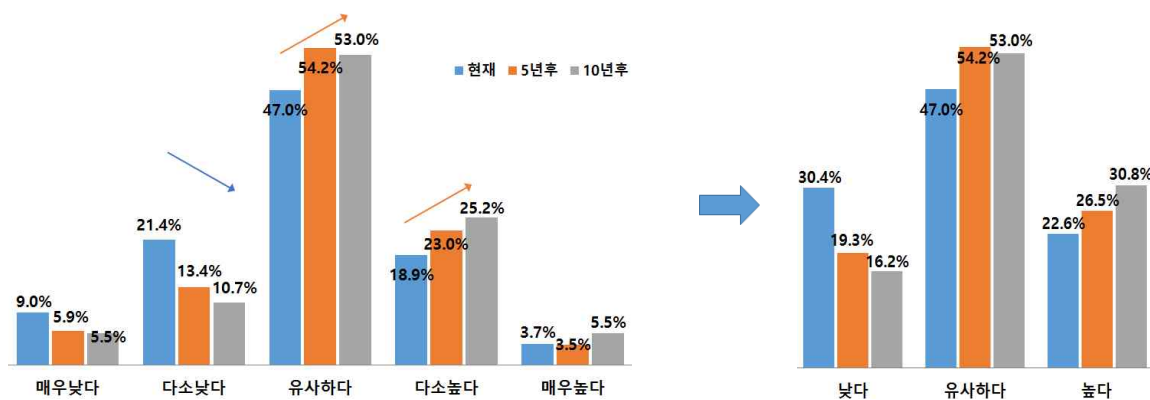
□ 일본 수입시장에서 일본 제품 대비 자사 주력 품목의 기술경쟁력을 묻는 질문에 기술경쟁력이 유사하다는 응답(47.0%)이 주를 이루었으며 우리 제품의 장기적 경쟁력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림

○ 전반적으로 일본 제품 대비 우리의 기술경쟁력을 유사하다고 평가

○ 현재는 일본 대비 우리 기술력이 낮음(30.5%) > 높음(22.6%)으로 나타났으나, 5년후에는 높음(26.5%) > 낮음(19.3%), 10년후에는 우리의 기술경쟁력이 일본 대비 앞설 것이라는 의견(30.5%)이 낮다는 의견(16.2%)보다 월등히 앞섬

<일본시장에서 자사 주력품목 품질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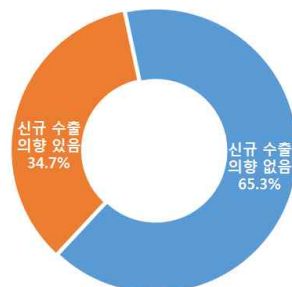
N=709



□ 현재 일본으로 수출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한·일 FTA 체결시 수출을 새로 개시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34.7%만이 신규 수출 의지가 있다고 응답

<FTA 체결에 따른 신규 수출 의향>

N=291



### (3) 한·일 FTA에 따른 수입 영향 (일본→한국)

□ 한·일 FTA 체결에 따른 일본으로부터의 수입 전망에 대해 대일 수입 업체는 수입에 변동이 거의 없을 것(48.1%), 소폭 증가할 것(40.4%), 크게 증가할 것(11.5%)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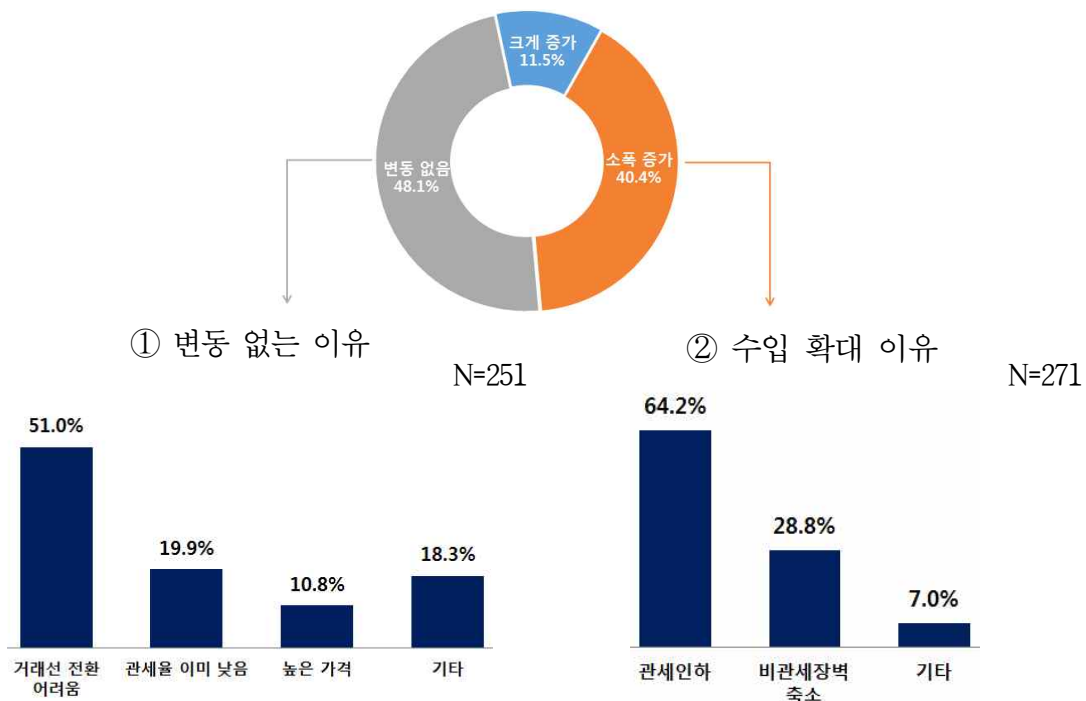
○ (수입 변동 없음) 수입에 변동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의 51.0%가 고정 거래로 현재의 거래선 전환이 어렵다고 응답

- 이어서 한국 관세율이 이미 낮아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 확대 효과 미미(19.9%), 일본 제품이 현재 사용중인 국산/제3국산에 비해 가격이 높기 때문(10.8%) 순으로 나타남

○ (수입 확대) 한·일 FTA에 따른 수입 확대를 기대한 이유로 우리측의 수입관세 인하(64.2%)를 꼽았으며, 비관세장벽 축소(28.8%)가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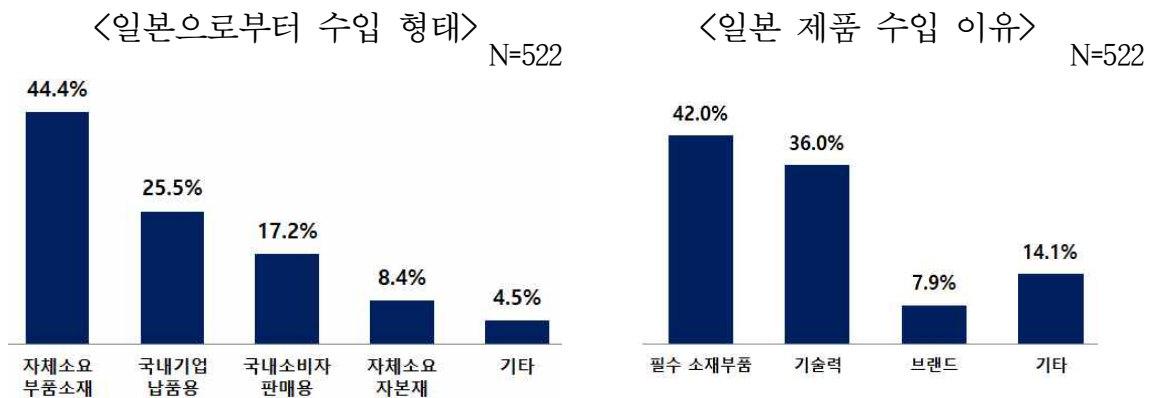
<FTA 체결에 의한 대일 수입 전망>

N=522



□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형태에 대해 대일 수입업체의 44.4%가 자체 소요 부품소재라고 응답하여 부품소재의 일본산 조달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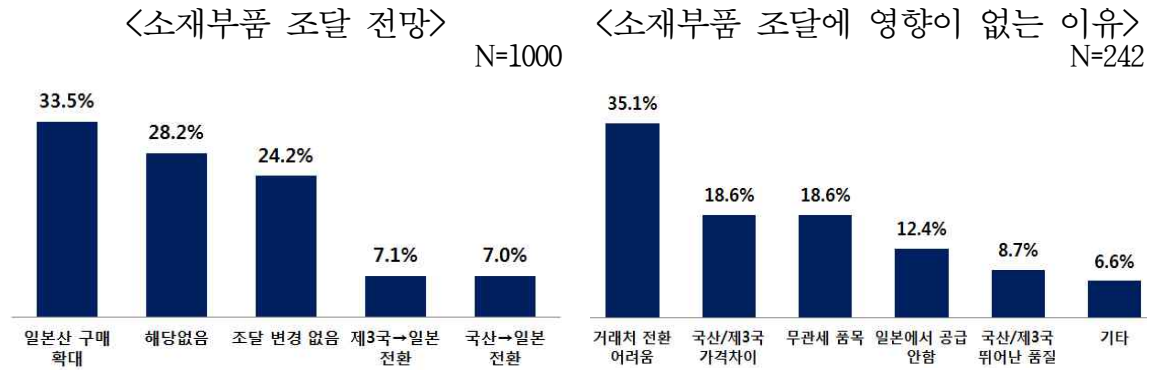
- 이어서 국내 기업 납품용(25.5%), 국내 소비자 판매용(17.2%)이 그 뒤를 이음
-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주된 이유로 42.0%의 수입업체가 대체 불가능한 필수 소재부품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기술이 좋기 때문(36.0%), 좋은 브랜드 이미지(7.9%)를 꼽음



□ 한·일 FTA 체결시 소재부품 및 자본재 조달의 변화 전망에 대해서 기존 일본산 구매를 확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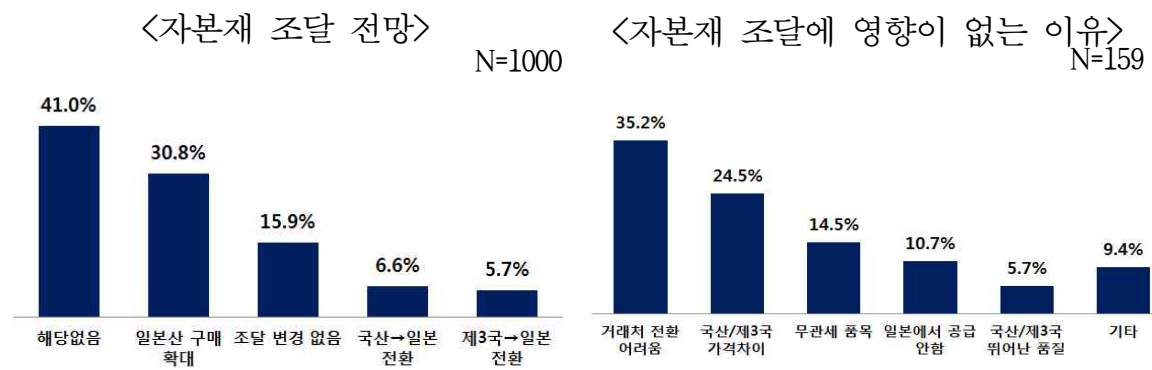
#### ① 소재부품 조달 변화

- 관세 철폐시 일본산 소재부품 구매 확대(33.5%), 관세 철폐에도 불구하고 소재부품 조달에 영향 없을 것(24.2%)이라는 전망이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조달에 영향이 없다고 전망한 이유는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로 거래선 전환 어려움(35.1%), 이미 무관세 품목(18.6%), 관세철폐에도 불구하고 국산 또는 제3국 제품과의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18.6%)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소재부품 조달을 제3국산에서 일본산으로 전환(7.1%), 또는 국산에서 일본산으로 전환(7.0%)하는 등 기존 조달선을 변경한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낮음



## ② 자본재(장치·기계설비 등) 조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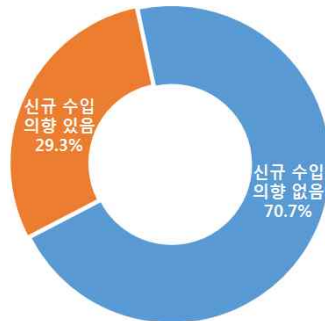
- 자본재 조달 변화에 대해 기존 일본산 소재부품 구매 확대(30.8%), 조달 영향 없을 것(15.9%), 국산→일본산 전환(6.6%), 제3국산→일본산 전환(5.7%) 순으로 나타남
- 관세 철폐에도 불구하고 조달에 영향이 없는 이유는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로 거래선 전환 어려움(35.2%), 가격차이(24.5%), 무관세 품목(14.5%) 순으로 조사됨



- 현재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한일 FTA 계기로 새롭게 수입을 개시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29.3%만이 신규 수입 의지가 있다고 밝혔고, 70.7%는 없다고 응답

### <FTA 체결에 의한 신규 수입 의향>

N=4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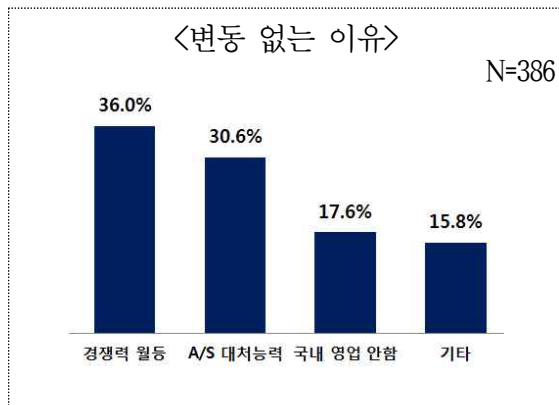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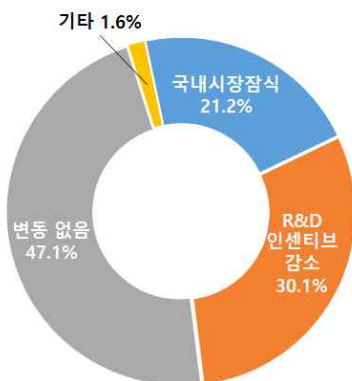
#### (4) 한·일 FTA에 따른 내수시장 영향

□ 내수판매를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내수시장 전망에 대한 질문에 큰 변화가 없을 것(47.1%)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일본산 제품이 국내 시장에 무관세로 수입되더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품 경쟁력이 일본산에 비해 월등(36.0%)하고, A/S 대처 능력 유리(30.6%)하기 때문으로 응답

### <FTA 체결에 의한 내수시장 전망>

N=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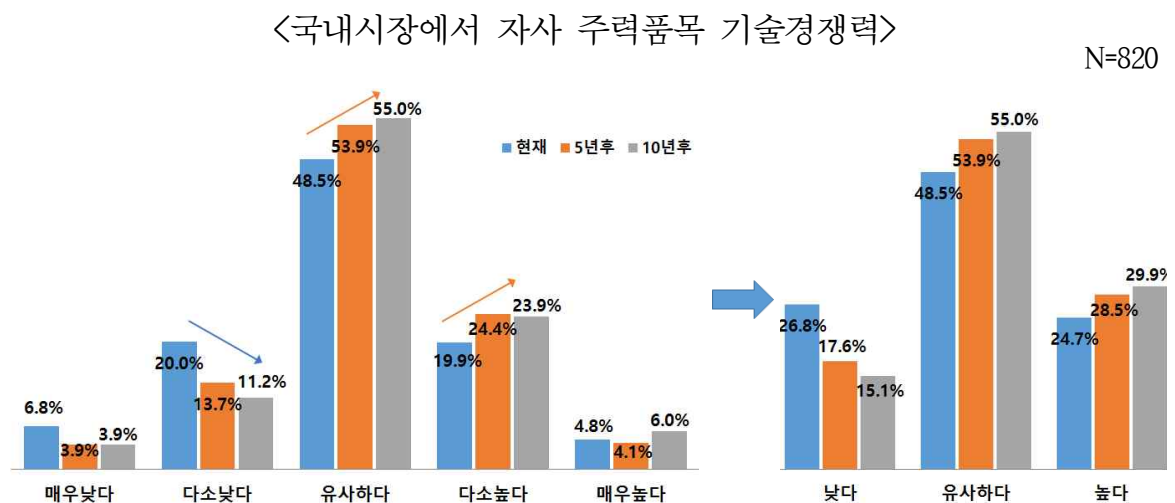


- 관세인하로 일본으로부터 직수입 유인이 증가하여 일본의 기술이전 또는 우리나라의 R&D 인센티브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30.1%를 차지
- 업종별로 기타화학공업(38.6%), 자동차 및 부품(37.9%), 정밀화학(36.4%), 정밀기계(35.8%) 업체들의 우려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남

- 한·일 FTA에 따른 국내시장 잠식 우려는 21.2% 응답률을 보였으며, 기계/정밀화학/섬유기업(각 27.3%), 자동차 및 부품(25.8%) 업종에서 보다 높게 나타남

□ 국내 내수시장에서 일본 대비 자사 제품의 기술경쟁력에 대해 유사하거나 높다(73.2%)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5년후 및 10년후에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기술경쟁력이 낮다는 의견은 현재(26.8%)→10년후(15.1%)로 감소하고, 유사하다는 의견은 현재(48.5%)→10년후(55.0%), 우리 기술경쟁력이 월등하다는 의견도 현재(24.7%)→10년후(29.9%)로 증가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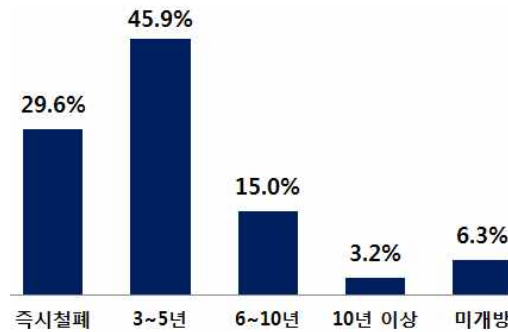
□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 철폐 적정 수준에 대한 질문에 3~5년 이내의 단계적 개방(45.9%)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5년 이내의 철폐(75.5%, 즉시 29.6% + 3~5년 45.9%)가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으나 국내 산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미개방을 요구하는 응답도 6.3%로 조사됨

- 기계(9.1%),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9.1%), 농림수산물(8.5%), 정밀기계(7.4%) 등의 업종에서 미개방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對일본에 관세 철폐 적정 수준〉

N=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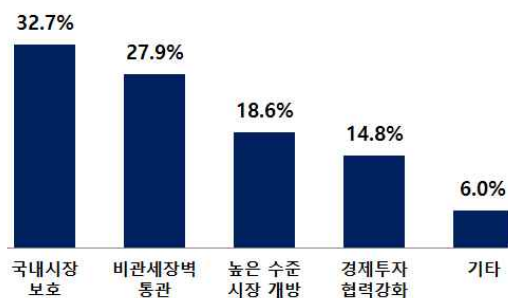
(5) 한·일 FTA 협상 관련 업계 건의

□ 한·일 FTA 협상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로 ‘국내시장 보호’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무역업체의 32.7%가 국내시장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비관세장벽 해소(27.9%),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18.6%)이 뒤를 이음

〈한·일 FTA 우선 협상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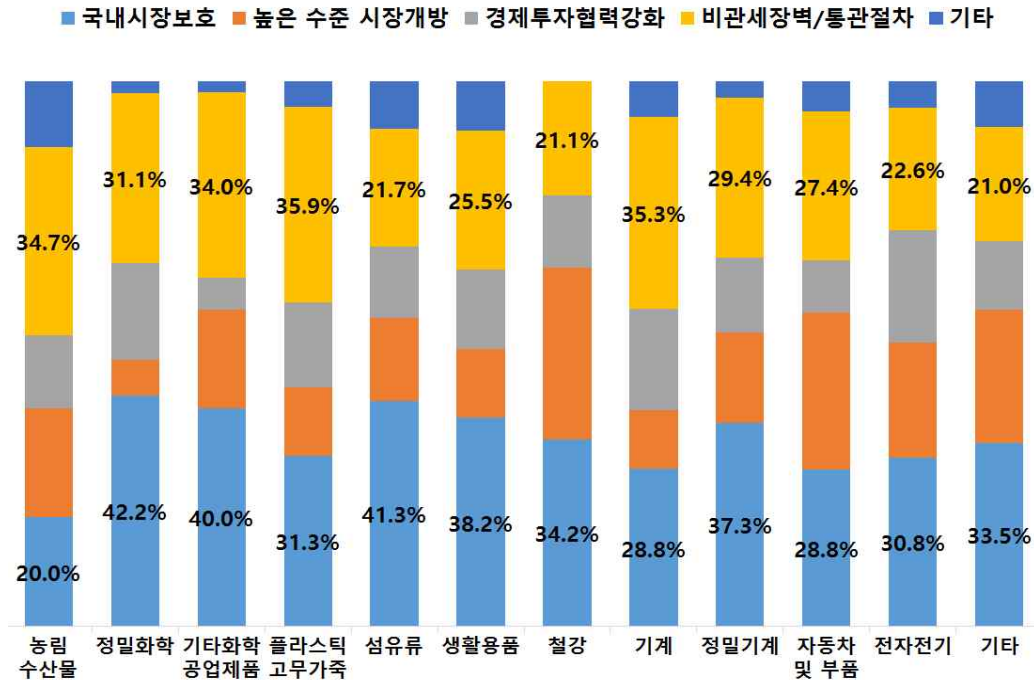
N=1000



- (국내시장보호) 업종별로 국내시장보호 비중이 높은 순서는 정밀화학(42.2%), 섬유류(41.3%), 기타화학공업제품(40.0%)으로 나타나며 이는 일본에 대한 경쟁 열위 및 수입 증대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
- (비관세장벽/통관절차) 업종별로 비관세장벽 해소 및 통관절차의 간소화 비중이 높은 순서는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35.9%), 기계(35.3%), 농림 수산물(34.7%)로 나타남

### <업종별 우선 협상 분야>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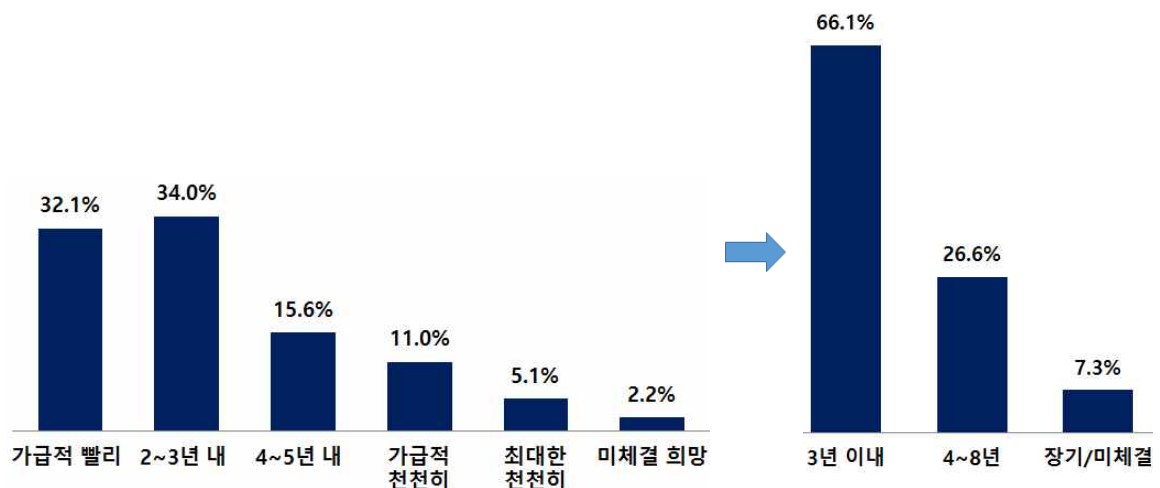


□ 한·일 FTA 타결의 적절 시기에 대해 무역업계의 66.1%가 3년 이내가 적절하다는 의견인 반면 7.3%는 최대한 천천히 또는 미체결 희망

○ 무역업계의 34.0%가 2~3년 이내에 한·일 FTA 타결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가급적 빨리(32.1%), 4~5년 내(15.6%) 순으로 나타남

### <한·일 FTA 협상 타결 적절 시기>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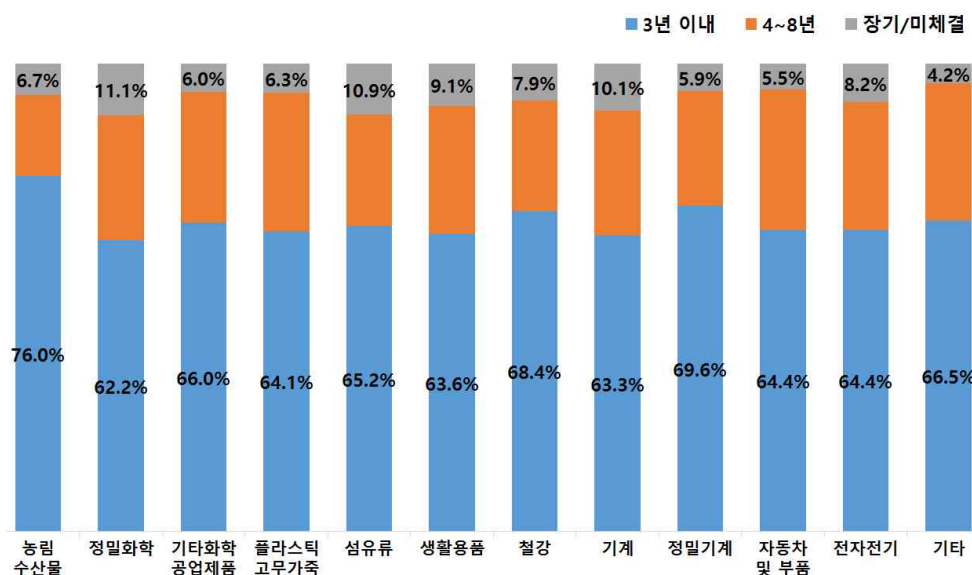
- 한·일 양자간 FTA 협상은 2004년 6월 협상 이후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일본과의 FTA 논의는 한·중·일 FTA, RCEP 차원에서 진행중임
- 2013년에 협상이 개시된 한·중·일 FTA는 제8차 수석대표협상까지 진행(2015.9월)되었으며 2013년 협상이 개시된 RCEP은 10월 중순 제10차 공식협상을 마침
- RCEP이 2016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함에 따라 다자 차원에서 한·일간의 FTA는 3년 이내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음

□ 한·일 FTA 타결의 적정 시기에 대해 3년 이내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모든 업종에서 60%를 초과함

- 특히 농림수산물에서 76.0%가 3년 이내라고 응답하여 업계의 일본에 대한 농수산물 수출 확대 기대를 반영
- 다만 정밀화학(11.1%), 섬유류(10.9%), 기계(10.1%) 업종에서는 장기/미체결 응답 비중이 높아 한·일 FTA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업종별 한·일 FTA 협상 타결 적정 시기>

N=820



### 3. 시사점

□ 무역업계의 53.6%가 한·일 FTA 체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6.1%가 협상 타결 시기로 3년 이내가 적절하다고 응답

- FTA 특혜관세에 따른 대일 수출 확대 뿐 아니라, 일본에 대한 소재부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입재 가격인하에 따른 생산비 절감 기대 반영
- 일본이 우리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무역업계는 일본과의 FTA 추진에 긍정적이며 3년 이내의 조속한 타결을 기대하고 있음

□ 한·일 FTA에 따른 향후 수출입 전망에 대해 관세 인하 및 비관세장벽 해소에 따라 수출업체의 54.0%가 수출 확대, 수입업체의 51.9%가 수입 증가를 전망함

\* (수출 증가) 소폭 42.2%, 크게 11.8%, (수입 증가) 소폭 40.4%, 크게 11.5%

- 다만 ①기존 거래선 전환의 어려움 ②양국의 낮은 관세율, ③비관세장벽 등의 이유로 한·일 FTA가 수출입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 전망한 의견도 상당수를 차지(수출 46.0%, 수입 48.1%)
- 한편 현재 일본과의 수출 또는 수입이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일 FTA 체결에 따른 신규 수출 또는 수입 의향에 대해 34.7%가 신규 수출을, 29.3%가 신규 수입을 개시하겠다고 응답함

□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물음에 47.1%가 우리의 우수한 제품경쟁력 및 A/S 대처 능력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함

- 국내 시장에서 일본 제품 대비 우리 기술경쟁력은 유사한 수준이며, 장기적으로는 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해 대일 기술경쟁력에 자신감을 보임

○ 반면 일본의 직수입으로 일본의 기술이전 및 우리나라 R&D 인센티브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과 국내시장 잠식 우려도 각각 30.1%, 21.2%로 조사됨

- 특히, 기타화학공업, 자동차 및 부품, 정밀화학, 정밀기계, 섬유기업 등에서 한·일 FTA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이 나타남

□ 무역업계는 한·일 FTA 협상시 ①국내시장 보호(32.7%), ②비관세장벽 해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27.9%)가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

○ 업종별로 정밀화학, 섬유, 기타 화학공업제품 등에서 국내시장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음. 따라서 정부는 협상시 해당 산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필요가 있음

○ 또한 농림수산물,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기계 등의 업종에서는 일본의 비관세장벽 해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 수출시 일본의 까다로운 품질기준 및 검사, 인증, 안전 기준 등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바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 증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업종별 한·일 FTA 협상 우선순위〉

| 분야       | 업종                                                   |
|----------|------------------------------------------------------|
| 국내시장 보호  | 정밀화학, 기타 화학공업제품, 섬유류, 생활용품, 철강, 정밀기계, 자동차 및 부품, 전자전기 |
| 비관세장벽 철폐 | 농림수산물,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기계                              |

## V. 결론 및 시사점

-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3국간 FTA 및 RCEP의 본격적인 상품양허 협상에 대비하여 일본과의 보완 또는 경쟁구도를 파악하고 세부 품목별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함
  - 일본의 시장개방은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및 일본산 관세 철폐를 통한 생산비 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일본산 수입 증가에 따른 우리 주요 제조업의 시장 잠식 우려
    - 이는 양국간 무역구조 분석과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임
  - 화학제품, 기계, 수송기계, 전기전자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관세 조기 철폐가 필요한 품목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품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
- 최근 협상이 타결된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될 경우 한중일 FTA 및 RCEP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한·일 FTA가 예상됨
  - 현재까지 공개된 바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등은 일본에 대해 공산품을 100% 양허하고, 일본은 TPP 회원국에 대해 농림수산물을 품목 수 기준 81% 개방한 것으로 알려짐
- 폐쇄적인 일본 시장으로의 우리 제조업의 진출이 쉽지 않고, FTA 타결시 우리나라의 관세인하 폭이 더 커 국내시장 잠식의 우려도 있는 만큼 중장기 산업경쟁력을 감안, 일본과의 시장개방 협상에 보다 철저히 대비해야 함